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길

#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7호 2008년 8월

## 휴식의 계절, 8월!

8월은 오르는 길을 잠시 멈추고
걸어온 길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8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NDEX

2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4 북한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라!
6 감사의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9 | 수리봉(샘밭)



13 | 밀양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 -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해결방안은 없는가?

**참여자** :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 양기태 목사(신남교회), 이영규 목사(새길교회), 김영명 장로(사단법인국가조찬기도회강원도사무국장, 성시본부부사무총장), 김영관 장로(홀리클럽사무국장)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 김미경

현재 한국사회는 우려할만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해 정국은 어수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서민들은 더욱 살아가기 힘든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신천지 등과 같은 신흥이단의 등장과 SBS TV '신의 길, 인간의 길'에 볼 수 있듯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속세력에 의해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바야흐로 분단 60년 역사가 종식되고 한반도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힘을 모아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21세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한국사회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현 시국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먼저, 정치문제를 생각해보자. 혼란스러운 정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 영 명**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 성시부사무총장)



정치적 현안문제에 대해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정국현안문제는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예민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치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정치나 사회문제 그리고 정치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얼마 전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가 나라사랑 비상구국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기도회 실무책임자로서 준비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기도제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도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과 사회안정, 국가정체성과 질서확립, 정치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과 정직한 삶,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대 간의 갈등해소와 바른 역사관교육, 영토문제(독도) 등이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바른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풍부한 영성 및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의 경제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말해 달라.**

**김 영 관** (홀리클럽 사무국장, 자영업)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서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듯하다. 현재 자영업자는 과포화상태이다. 다시 말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태이다.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재래시장의 몰락이다. 돈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재래시장보다 대규모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의 침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춘천시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계속적으로 서민경제의 유익을 위해 더욱 창의적인 계획으로 도움주기를 바란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신앙정신으로 무장하고 성경적 삶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또한 허영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허례허식을 버려야 한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구매할 필요가 있다.

**김 영 명**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 성시 부사무총장)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근래에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의 문제로 해당업체가 큰 곤경을 치렀다. 언론보도도 신중해야 하고, 시위를 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촛불시위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주변 상인들이 시위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가난한 서민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다.

**교회문제를 생각해보자. 교회 수는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적대적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교회가 한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김 영 관** (홀리클럽 사무국장)

얼마 전 통일교 교주가 탄 비행기가 기상악화로 불시착 한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에 들어가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 받고 있는 통일교를 불신자들은 교회보다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를 생각해 보고 내린 결론은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개교회적으로는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개교회주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라고까지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시급하게 사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할 시기이다.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수강생 모집

취업을 걱정하십니까?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른 5만 5천명의 요양보호사 인력필요
- 6주 교육 후 시험없이 국가자격 취득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 자격 획득

강원도 지정 교육원
기존의 간병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최고의 강사진
- 탁월한 교통 요충지
- 체계화된 교육내용



(주간 · 신규) 8월 4일 개강 (야간 · 경력자반) 8월 11일 개강 / 개강 이후 수시모집(주간 · 야간 · 주말반)

[섬김과 나눔 요양보호사 교육원] ☎ 241-8801 · 241-8802
(운교동 파출소 앞, 외이신협, CBS기독교방송 3층)

# "거룩한 도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로만 이루어진다!"

**▮이 영 규** (새날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며칠 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구호 차 다녀왔다. 구호품을 전달하는 나에게 선교사님의 간절한 호소는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다.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을 세워주기보다 신앙으로 무너져가는 나를 세워주세요." 한국교회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하나님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최대의 재난은 말씀의 기근이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미 한국교회에 소리 없는 기근인 말씀의 기근현상이 임했다고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교회내부에서 신흥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흔들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 기 만** (옥산포침례교회)



뜻하지 않게 한국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기쁜소식선교회(구원파)와 신앙교육문제로 대면한 적이 있다. 영어공부를 빙자하여 잘못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어서 기독교연합회와 한기총에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 이번 경험을 통하여 이단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적절한 법률적 예비지식을 가지고 교회가 연합하여 대처해야 한다. 이단들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잘못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냥 방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적, 법률적으로 준비하여 합리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이 영 규**

이단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들이 이단지도자들이나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단과의 대화는 자칫 논쟁으로 비화되기 쉽다.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최대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피하여 넓은 길로 가려하는 타협주의이다.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는 작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단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해 주목해 보자.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갈 영적 힘을 잃게 되면 자연스레 무속신앙과 세속문화가 발흥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양 기 태** (신남감리교회)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도 200년이 넘었다. 그동안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외래종교들에 비해 그 역사가 무척 짧은 기독교가 이미 다수종교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한 것도, 기독교와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 결합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 땅에 과연 '기독교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신남교회 주변에는 김유정문학촌이 있다. 올해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0월까지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사들은 기독교 문화와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그렇다고 행사를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물론 세속문화가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화적 전통을 받아들여 종교가 아닌 제의의 축제성 곧 놀이문화로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을 창출해 내는 프로그램 등을 교회가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남교회에서는 앞으로 신남지역에 건전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 예로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안과 평안을 주기 위해 '작은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 영화상영도 할 계획이다. 저는 춘천기독교연합회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관현악단, 워십(몸찬양), 찬양단, 성악가 등 다양한 찬양팀들과 음악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큰 교회나 체육관에서 춘천시민들을 초청하여 열린 음악회를 가진다면 -방송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처럼- 춘천에 건전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다.

**▮김 기 만** (옥산포침례교회)

이단문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연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며 연합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교회와 문화와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다. 문화변혁을 통해 이 사회를 적극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정복하려 들 것이다. 이단문제와 성경적 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일에 모든 교회들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 재 호** (성시본부 사무총장)

신구약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악한 영들과 강렬한 싸움을 벌였으며, 그 싸움이 종종 기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용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한국사회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chcm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춘천 성시화를 위한 3천 성시후원자를 찾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제목**

- 춘천이 성령충만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복된 도시로
- 춘천이 예술과 문화, 교육과 환경의 세계적 명품 도시로
- 교회와 열방을 위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도시로
- 춘천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모델 도시로

**후원자 참여 안내**

- 성시 3천 기도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1인 월회비 최소 2,000원을 약정해 주세요.(자동이체)
- 119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세요.(하루 1번 9분 기도하기)

문 의 : 033) 256-1260~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 www.holycity.or.kr / E-mail: hc1260@hanmail.net]

무원계좌 농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주입을 지원합니다!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첫째주입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 북한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라~!

## 대를 이어 준비된 통일을 꿈꾸는 벤 토레이 신부(58 · 예수원 삼수령수련원장)편 입니다



**벤 토레이** 신부는 故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다. 1957년 8살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후 스무살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컴퓨터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큰 집을 얻어 치유가 필요한 영혼을 돌보는 쉼터사역과 크리스천학교 이사장으로 교육 사업에 몰두하였다. 2002년 8월 아버지의 죽음이후 북한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故 대천덕 신부의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이어받아 현재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의 삼수령센터에서 북한 개방에 대비한 통일 일꾼을 양성하고 있다. 벤 신부는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의 개방을 앞두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에 앞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삼수령센터에서 북한으로 흘려보낼 '네 번째 생명의 강'을 준비하고 있는 벤 신부의 사역에 주목해 보자.

**한국에 귀국하여 북한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다.**

**북한을 섬길 일꾼을 준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79년 사제서품을 받은 후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20년 동안 쉼터사역을 하였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2002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위하여 한국에 머물 때 아버지와 오랫동안 교제하셨던 친구분께서 "창세기 2장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삼수령계획은 아마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권유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하나님은 짧은 간격으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과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북한을 위하여 아내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사회가 개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강은 모두 4개이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 삼수령은 3개강의 발원지-동해(오십천), 한강, 낙동강-이다. 북한으로 흐를 4번째 강이 필요하다. 북한사회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방되었고 앞으로 완전히 개방될 것이다. 북한을 섬길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하여 한국으로 왔다.




**삼수령에서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네 번째 생명의 강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준비된 하나님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다.**

삼수령센터는 태백산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발원된 물은 동해(오십천)와 한강,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빗물이 고이면 동쪽과 서쪽, 남쪽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맨 처음 발견해 '삼수령'이란 지명을 붙인 분이 바로 아버님이시다. 아버님은 1965년 산림청으로부터 이곳 15만평을 임차해 삼수령 목장을 세웠다. 처음에는 젖소 2마리를 구입하여 축산을 하였다. 삼수령은 오직 축산만 할 수 있는 지역인데, 현재는 태백개발특별법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삼수령 목장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다. 이곳에서부터 북한으로 '4번째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한다. 이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강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북으로 가라는 부르심이다. 이를 위해 삼수령센터는 삼수령청소년수련원과 삼수령훈련원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원은 북한개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야말로 통일시대에 북한사람들과 대면하여 한반도 통일을 완성시킬 주인공들이다. 또한 삼수령훈련원은 네 번째 강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북한학교와 노동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북한 및 통일 전문가를 초청해 균형 잡힌 북한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학교는 오전에는 노동으로, 오후에는 북한에 대한 강의와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수원이 중요시하는 영성은 "노동"이다. "기도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북한선교는 노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선교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선교를 막연하게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사람들을 경험해 보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북한과 남한사회는 60년 이상 분단된 지역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혹 인종적, 언어적으로는 동질감이 있을지라도 세계관, 문화관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북한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북한선교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때 한국교회가 탈북자사역에 열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1년 안에 대부분 사역을 접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이다. 오래전 연변 도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 교제한 적이 있다.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령님과 장군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미제국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에 대한 이해부족을 회개했다는 고백을 들었다. 북한선교사역이 효과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사람들은 2살 때부터 김일성, 김정숙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추종해야할 어버이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다. 북한의 모든 교육은 종교교육과 매우 유사하다. 이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개방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가?**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한반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될 것이다.**

북한사회는 이미 많은 부분 개방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개방화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북한사회의 개방을 앞두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파숫꾼 역할의 하나로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62: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 분열된 한국교회는 북한선교와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섬길 수 없다. 먼저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게 될 때 분단된 한반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순조롭게 통일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이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이사야62:6-7)**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북한선교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사역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성령공동체**

삼수령수련원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네 번째 프로젝트는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가졌던 무지와 오해를 교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북한선교방안이 모색될 수 없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한 가지, 예수원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성령사역이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능력을 무장하여 정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류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원의 비전이요 꿈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사역과 사회정의는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연구해 보고, 기독교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오히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불의한 사회구조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북한선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성령공동체로서 예수원과 삼수령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벤 토레이 신부의 가문은 한국과 4대에 걸친 인연을 맺고 있다. 벤 신부의 증조부이자 성령론의 대가인 토레이 1세로부터 한국 의수족사업 창시자인 토레이 2세, 3세인 예수원 창립자 대천덕 신부에 이어 벤 토레이 신부에 이르기까지 4대가 한국을 위해 사역하게 된 것이다.

[취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 재난의 현장, 미얀마에서 온 편지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재난이란 것을 모르고 자라지만 어떤 이는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냥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명이라 하지요.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믿지 아니할 때 주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아픈과 고통을 남기고 간 재난

미얀마의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장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나 해일이 사정없이 쓸고 지나간 뒷자리에는 아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고 질병과 상처,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죽음이 뒹구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 그분의 진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의 모습과 나 자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닌 잔인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목격했습니다. 아름다운 가면을 쓴 휴머니즘에 흠뻑 젖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지난 5월 2일 밤새 내리던 비가 3일 새벽 2시가 되면서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또한 밤알 크기만 한 우박을 쏟아 부었지요. 이는 뱀부 하우스 지붕을 뚫고 총알 박히듯 부어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어져 날아가고 벼락으로 가전제품, 컴퓨터 등이 심한 충격을 받고... 모두 잠에서 깨어 나와 피할 곳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사이 집은 날아가고 해안지역에는 해일이 덮쳤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어떤 이는 야자나무에 올라가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자손손 살아오던 섬이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8:21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나뒹구는 시체들.. 악취...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저도 한참을 멍청히 업드려만 있었답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5일이 지나서야 통제를 시작하여 누구도 현장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마침 고향이 레빠따인 한 학생이 집에 갔다가 조부모님과, 동생을 해일로 잃고 울며 온 보고를 듣고 우리는 더 이상 지체치 않고 의약품, 물, 장갑, 마스크, 식량을 준비하여 청년7명과 함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현실 앞에 눈물만 나올 뿐... 희생자가 30,000명이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미얀마 선교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어려움이 곧 기회





정신을 차리자 차선으로 해야 할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세워주기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어느 마을은 화장실만 9동 건축해 드렸습니다. 한 채에 많게는 250,000짯 적게는 13,000짯으로 건축하는 일을 도왔으며 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쌀 40가마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물론 선교효과는 100%이상이었음을 감히 보고 드립니다. 절도 많고 중도 많아 메일 시주받는 심방은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집을 지어주고 쌀을 제공해주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이는 오직 목회자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곧 기회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신속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건축하라고 보내주신 헌금과 자립선교밑천인 돼지헌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총회 사회부에서 $3,000을 보내주셔서 힘을 실어주셨고, 또 더 많은 헌금을 모금하여 보낼테니 활동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어진 사명





워낙 대규모의 재난이기에 급히 필요로 하는 지원만을 선별하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천막 조각으로 하늘만을 조금 가리고 벽 없이 지내는 이들을 어찌해야 할지... 비바람 몰아치면 작은 몸 하나 숨길 데가 없으니... 여하튼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최선으로 섬기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원인외의 다른 생각들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재난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도 누구도 원망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 앞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운명론적이든 아니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부러웠고 우리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없으면 없는 데로 춥고 배고프고 밤새 비 맞고 떨어도 누구에게 원망없이,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는 뭐하는 거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더 주지 않는다고 시위하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불신앙의 소치임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 준언 선교사
교회가 없는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왔다. 춘천에서 서로사랑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성시화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였다. 현재 미얀마 로암선교회를 창립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랑의 예물〉
▶ 우체국 200022-02-090904 농협 301034-51-021408 예금주 김준언
▶ 홈페이지 : Daum cafe "미얀마 로암선교회"
▶ 문의: 최병두사장 011-9098-3928
양곤본부 001-951-661-405 아웅산힐아버지

노인 요양보호사
시. 험. 없. 이 국가자격증취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규반 모집 8월18일까지 정원 : 40명, 기간 : 45일
▶ 등 록 : 선착순 접수함 ▶ 현재 접수중(나이, 학력, 구분없이 누구나 다 신청 가능)
본 자격증을 취득 하시면 재가복지시설원장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신 취업이 가능합니다.
" 9월22일 신규반 : 주간 · 야간반 40명 모집 "
※ 자연속의 쾌적한 공간, 셔틀버스운행, 넓은 주차장

강원도 제2호 지정교육원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실 ☎033)241-2660, HP011-448-7660
춘천시 동면 율곡리 192번지 (동면 옥광산 옆)



# 감사의 신앙을 전파하는교회

감사교회는 지난 2003년 1월, 이병준 목사와 가족들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 창립되어 하나님 중심, 감사생활 중심의 일관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동네면 거두리와 석사동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힘쓰는 행복한 교회이다. 그 아름다운 감사와 변화의 신앙을 함께 나누어보자.

##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감사교회(이병준 목사)편입니다

### 이병준 목사와 개척



이 목사의 고향은 충청남도 대천이다. 기독교와는 무관한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친구의 인도로 인근 교회를 출석한 이후 일관되게 주님을 섬겨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무리(?)가 될 정도로 빠르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목사에게 허락하신다.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어린이교회학교 교사로 섬겼고, 고등부 시절에는 교회 간판과 지붕 공사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조숙한 신앙과 봉사를 통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춘천에서의 교회 개척은 뜻밖의 결정이었다. 당시 이 목사는 10여 년의 목회 경력이 있었으나 단독 목회에 대한 열망이 없었고, 더군다나 강원도 춘천은 전혀 연고가 없는 낯선 도시였다. 그러나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춘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이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지만 퇴계동에서 시작한 첫 교회개척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목회계획, 지하교회라는 열악한 환경, 물질적인 어려움이 겹쳐 2년여는 감당할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고 회고한다. 지하교회이기에 장마철이면 수시로 물이 흥건하게 차올라왔고, 성도가 없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절망감에 벽을 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연단의 시간이었다.



### 어린 영혼들과의 만남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수시로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보내시는 작은 후원의 손길들과 함께 눈빛이 빛나는 어린 영혼들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작은 지하교회였으나 어린이들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 병준 목사와 차재정 사모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작은 천사로 받들며 섬겼다. 이 마음이 통했을까. 아이들은 이 목사를 삼촌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따랐다. 이 아이들과 때로는 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떡을 때며 식탁을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은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차재정 사모의 음악적 재능이 어린이 선교에 한 축을 감당하였다. 차 사모는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드럼, 전자 오르간 등의 악기를 가르쳐주며 영적 보모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아울러 이 목사는 어릴 때 익힌 천자문의 기억을 더듬으며, 아이들의 한자를 지도한지가 벌써 3년이 가까워 온다. 물론 어린이들을 사역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회 주변의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적지 않았고, 이 목사의 가정 또한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사역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올수록 웬지 마음의 오기처럼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온 몸으로 와 닿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5-6년을 씨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진학을 목전에 둔 고등부와 중등부의 핵심일군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장년부의 뒤를 잇는 어린 1세대로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생겨난다. 찬양 팀을 비롯해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들을 뒷받침하는 일군들로 성장한 것이 큰 보람이다.

### 공동체 정신

감사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가족'이다. 이는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평생 감사의 삶을 잃지 말자는 정신이 그 속에 담겨있다. 감사교회의 모든 사역은 감사의 정신과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신앙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애를 쓴다. 그 표현으로 감사교회의 모든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이다. 다시 말해 모든 어린이들이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금요 저녁기도회까지 함께 참여한다. 감사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강조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개척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변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이병준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세대를 초월한 공동예배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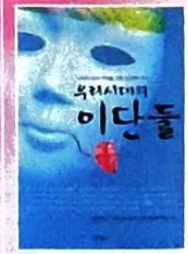
### 더 큰 미래를 향해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던 청소년 시절,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성 프란시스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부귀영화와 가족을 부인하면서까지 행한 성자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았다. 이러한 원초적 삶의 갈망 때문일까. 감사교회의 최종 목표는 모든 성도가 온전한 십자가 신앙과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이 목사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우며 도전하려 한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이병준 목사와 차재정 사모, 하영(9), 하진(6), 하성(2), 그리고 감사교회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모두가 꿈꿔본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춘천기독교연합회
〈우리시대의 이단들〉책 판매



▌연합회보급가 3,500원 한정판매
시중가 5,000원
▌문 의 : 춘천기독교연합회
010-3275-2700
(총무 오의석 목사)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주말 연제나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영혼의 양식

# 하늘에 보물을 쌓자!

마6:19-24



김 왈 욱 목사 (안디옥성결교회)

어느 부자가 수억대의 돈을 저축해 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은 상속 재판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재판정에 나온 담당의사는 부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운명할 때 자녀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임 받던 서기들은 그가 죽기도 전에 뒷방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증권, 주식, 채권들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인 잃은 재물만 남겨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물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상대성'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축구선수는 튼튼한 두 다리가,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학식이, 또 소중한 자녀가 보물이기도 합니다.

**보물의 세 번째 속성은 '관계성'입니다.** 직장이 없고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병들었다거나 낙심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이 생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세상일에 분주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이럴 때, 그 직장이나 사업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사업체나 수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라며 살아갑니다.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느냐, 땅에 쌓아두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곁을 떠나 영생을 얻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가 들어 있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의 가치는 그 시대 성인남자 300명분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3백 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값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마리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보물을 천국에 쌓아 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우리의 보물을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19:17)

**마지막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12:3) 전도자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상급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로 구제와 착한 행실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쌓아 두십시오. 그곳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화를 하늘에 쌓아 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색의 창

# 좋은 장로, 좋지 않은 장로의 모습



김 기 태
(중앙감리교회원로장로)

한문에 조예(造詣) 깊은 선배 장로와 지난날의 믿음 생활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 후회막급, 부끄럼투성이,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장로는 되지 말자며 〈좋은 장로와 나쁜 장로〉의 유형을 한문자 상사음(相似音:비슷한 소리) 쓰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필자의 짧은 지식을 발휘하여 사전을 펼쳐놓고 한자(漢字)의 음과 뜻을 조합하여 글을 만들어 보았다. 억지 글이라 폄하(貶下)하지 않고 읽으면 작은 실익(實益)은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발표한다.

※ 이런 장로가 되자!

1) 장노(葬怒:장사할장): 성내고 화내는 급한 성질을 무덤에 장사지내는 장로
2) 장로(奬勞:권장할장): 교회와 사회봉사를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장로
3) 장로(藏煖:감추는장): 난로 불처럼 감추어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장로
4) 장로(掌路:손바닥장): 성도들의 신앙을 손바닥 보듯 바른길을 인도하는 장로
5) 장로(醬嘮:지껄일로): 말 많이 하지 않고 된장, 간장처럼 맛내는 언행을 하는 장로
6) 장로(長忉:뉘우칠로): 잘못을 정당화 하려하지 않고 뉘우치고 자성하는 장로
7) 장로(薔鷺:장미꽃장): 장미꽃처럼 곱고 백로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지니는 장로

※ 이런 장로는 되지 말자!

1) 장노(長怒:노할노): 어른답지 못하게 교회 일에 성내어 불안하게 하는 덜된 장로
2) 장로(藏弩:실촉노): 독 바른 살촉을 감추고 있다가 무차별 공격하는 간악한 장로
3) 장노(長惱:번뇌노): 믿음이 악해 길팡질팡 번뇌하면서 웃음거리가 되는 장로
4) 장로(長努:힘쓸노): 이무 노력도 하지 않고 으뜸인 냥하는 무용지물 허풍장로
5) 장로(粧老:단장장): 믿음을 거짓되게 꾸미고 자랑하며 늙어가는 몰염치한 장로
6) 장로(長廬:길대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길대처럼 우왕좌왕 지조 없는 장로
7) 장로(草老:글월장): 글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른 노릇하는 무식한 장로

※ 이왕이면, 좋은 장로 되어야지.

장로(長老)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 우두머리, 공동체의 최고 연장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의미는 장로(長老:Elder)는 교회에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목자적인 역할을 하는 신앙의 표본적 사람, 디모데전서 3장1절~7절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교파와 교회가 창립되어 장로의 수효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더러,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를 갖지 못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장로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나 훌륭한 장로기 많이 있다.

나 자신이 이런 장로가 되지 못하였고, 나이 들면서 원로(元老) 장로기 원로(遠路) 장로 되어 밤길이 멀다고 예배 출석이 줄어드는 것도 회개하며 크게 각성한다.

"후배 장로들이여!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닦으시라!"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 제 5기 "푸른 꿈 영어 특강"

요리를 시 드시겠습니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겠습니까?
50개 단어를 15분 만에 잊지 않게 기억하는 비결과 함께 이 특강을 듣고도 영어가 어렵고, 싫으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기 원해서라면 걷고, 뛰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영어 고민 끝~ 영어 재미는 시작.

수 강 : 8. 4 ~ 22 오전 9:00 10:00
수강료 : 7만원 (교재별도)
대 상 : 초교 4학년 이상
접 수 : 8. 4 (접수자 외 수강 불가)

대영 E.M.I 학원 (011-9797-4217) (퇴계동 우성@ 앞 상가 2층)

## 야웨신학교 특강안내(오픈강의)

1. 성경적 상담학
- 일시: 2008. 8. 18(월) 19:00~22:00
- 장소: 야웨신학교 춘천캠퍼스(춘천제일장로교회)

2. 성경원어문법분해
- 교수: 윤용진 박사(야웨신학교 학장/ 총신대학교 대학원 Th.M.Ph.D.)
- 일시: 2008. 8. 19(화) ~ 22(금) 19:00~22:00
- 장소: 야웨신학교 춘천캠퍼스(춘천제일장로교회)
- 내용: 히브리어,헬라어 기초문법 및 분해
- 수강료: 무료

문의: 야웨신학교 춘천캠퍼스 033)253-7942
교무처장 김희균 목사 010-8901-0059



# 찬양하는 치과의사

## 치과의사에서 찬양사역자로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유영호 장로(그레이스교회)편

누군가 인생을 <숨은그림찾기>라고 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 숨은 그림은 눈을 크게 뜨고 찾지 않으면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어딘가엔 찾는 그림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숨은 그림도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이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다. 여기 역경의 터널을 지나 그분이 새겨 놓으신 숨은 그림을 찾아 새로운 삶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 유영호 장로의 복음성가 가수의 길

춘천이 고향인 사람들은 아마도 건민약국과 유영호치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근 30년 동안 춘천의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국제와이즈맨 오메가클럽을 창립하여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인재를 육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춘천YMCA 부이사장, 경제정의실천협의회 공동대표, MBC방송부위원장, 기독의료인회장 및 강원도치과의사회 고문 등 굵직굵직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병원건물 3, 4층에 "유스아트홀(Youth Art Holl)" 이란 공간을 만들어 찬양과 기도회를 가지며 후배 찬양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95년 찬양 테잎 및 CD(제1집 "내 영혼 깊은 그곳에" 외11곡 제2집 "세상의 빛" 외10곡)를 제작할 정도로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생애에 이러한 숨은 그림을 찾게 된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다.

### 믿음의 가정

부친 장로님(유일성)은 할아버지를 따라 황해도에서 월남해서 결혼하여 누님과 형을 낳고 1차 세계대전 때 의용군으로 전쟁에 끌려가게 된다. 전쟁포로가 되어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수용소에 있을 때 연합군 포로들이 사형직전에도 찬송과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전쟁 통에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부친은 해방이 되어 살아 돌아왔다. 그 후 4남매를 더 낳았고 바로 그때 유영호 장로는 첫 번째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된다. 부친은 건민약국(내가 알기로 춘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을 경영하며 부동산과 약제업(제약회사)을 통해 춘천에서 소문난 거부가 됐다. 부친 덕분에 어릴 적부터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다. 그리고 모친(이명숙 권사)의 기도의 열정이 대단하여 새벽 4시만 되면 옥상에 올라가 민족을 위해 구국기도를 드리던 모습과 신학생 및 선교사들을 섬기는 모습 등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고 회상한다. 모친은 자주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찬양을 들려주시며 많은 칭찬과 기도로 유 장로를 양육하셨다고 한다.



### 가수활동 시절

음악이 재밌고 좋아서 음대를 가려고 했으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치의대에 들어가게 된다. 유 장로는 음악뿐 아니라 중학교 때는 야구선수로, 고등학교 때는 유도 및 달리기 등으로 예체능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게 된 것도 학창시절 여가를 이용해 YMCA에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대학시절에는 기타를 치며 서울 Y.M.C.A(전국대학Y부회장시절)에서 건전가요를 보급하였다. 당시 통기타를 치며 가수활동을 하던 윤형주, 정미조, 은희 씨도 함께 음악을 했었다고 한다. 대학시절 노래가 너무 좋아, 서울 명동 유명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1년 휴학을 하면서까지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연예활동을 하며 인기도 누려보고 돈도 가져보았다. 하지만 그는 어지러운 세상에는 참 만족함과 참 기쁨이 없음을 느꼈다. 결국 그는 주위 유명방송인, 음악인들의 적극적인 가수의 권유와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이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다.

### 평탄한 삶에 찾아온 절망

의대 졸업 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군생활인 치주과장(대위예편)을 마치고 춘천에 내려와 건민약국 2층에 유영호치과를 개업하게 된다. 이후 부친의 꿈이었던 약사 며느리(현재, 강미숙 권사)를 만나 맞선본 지 두 달 만에 결혼하였다. 주말이면 무의촌 진료를 다니면서 YMCA 등 여러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평탄해 보이는 삶 가운데 먹구름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족함 없이,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 보다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더 의존하게 되었다.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여러 사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사회적, 직업적, 가정적인 문제로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니 심각한 노이로제 증세까지 보였다. 무엇보다도 쉬고 싶은데도 주일에는 어김없이 교회에 가야한다는 습관적인 모태신앙인으로써의 종교적 압박감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 되었다. 그리고 모친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아내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딴지 까지 걸면서 급기야 종교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에까지 이르렀다. 결국엔 안면이 마비되어 병원 문을 닫고 한 달을 쉬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 순간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여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다. 이때 그의 영혼을 든든히 다져주셨다. 계속 기도하던 부인과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징계 후에 때가 차면 고쳐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을 주셨다. 결국 한 달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신비하게 마비되었던 부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 변화된 삶, 새로운 비전



이 일이 있은 후 전과는 다르게 지루하기만 하던 예배와 설교가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한다. 바로 그 주간 부흥회가 열렸는데 타의에 의해 처음으로 특별찬양(토스티의 "기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찬양을 불렀다. 교인들도 '강팍하고 교만하던 유원장이 변했다' 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고 한다. 은혜 받은 후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그래서 가스펠 라이브 콘서트, 춘천복음화를 위한 간증찬양콘서트를 개최하여 95년도에 기념 찬양테잎을 제작하였다. 또 김민식 전도사를 만나 찬양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사비로 장만한 음향기기를 가지고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치과진료도 해주고, 찬양과 간증집회로, 지금도 부르는 곳이라면 달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10여년을 섬기고 있다. 그 후로도 교회생활이 나태해질 때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면서 요즘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한다.

### 찬양이 흐르는 거룩한 도시의 꿈

현재 그레이스장로교회(예장) 장로로써 마음처럼 최고로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다고 진솔하게 고백한다. 유 장로는 앞으로 춘천에 국제적인 찬양제가 매년 열리는 도시로, 그래서 춘천을 국제적인 기독문화의 도시로 바꾸고 싶은 열망과 기독의료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유스아트홀을 개방하여 찬양영성훈련원 및 건전가요와 찬양을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기독영화를 상영하여 춘천의 기독문화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앞으로 YMCA 및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성시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춘천을 복음화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빼놓지 않았다. 이 거룩한 비전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진행 정재호, 취재 최영조, 사진 김미경]





##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과 희망을

### -단 1만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 보세요

북한은 수해로 흉년이 되고,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어지자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가중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네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가르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강조하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 **1만원의 후원은** 북한 동포 1명이 한 달 동안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한 가정이 약5만원 정도로 1달을 생활).

▶ **우리하나' 프로젝트는** 한민족복지재단 주관 하에 북한가정사역연구소,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챤투데이, 브이코아, 세이하쿠닷컴이 함께하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보내는 범국민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한민족복지재단 춘천지부(이사장:김주완목사)는 북한동포의 인권회복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국: 011-653-3595, 010-2030-8150)
계좌번호 Y신협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우리 곁에 있는 山

# 수리봉 (샘밭)



## 수리봉 개요

춘천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이 북쪽 능선을 이루고 있는 산들이 아닐까 한다. 춘천댐으로부터 시작되어 소양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긴 능선이지만 잘 아는 분이 없다. 춘천댐에서 배후령까지 15.8km의 긴 능선을 가지고 있으나 그 능선을 이루고 있는 산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것은 수리봉이 유일하다. 이름을 붙일만한 산이 없어서인 듯하다.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유일한 산이 수리봉이다. 수리봉은 신북읍 발산리와 사북면 고성리 사이에 위치한 656m의 산이다. 그 높이에서 알 수 있듯이 발산리 앞에서 보면 산의 위세가 당당해 보인다. 그런데 그 위세는 높이만이 아니다. 신산경도에는 도솔지맥으로 분류된다. 백두대간에서 도솔산, 사명산, 오봉산으로 이어져서 수리봉을 거쳐 우두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에 속해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족보)있는 집안이란 말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밝혀두는 것은, 춘천에는 수리봉이란 이름의 산이 두 개가 있다. 지난 6월호에 소개한 적이 있는, 원창고개에서 대룡산 쪽에 있는 산도 수리봉이다. 두 산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수리봉의 유래

수리봉을 배경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되었는데, 발산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발산이란 이름은 바리(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바리산(발산)은 마을 한가운데로 돌출해서 가장 양지바른 동산을 이루고 있고, 그 방향이 정남향에 가깝다. 아침 일찍 햇빛이 비치고 가장 늦게 햇빛이 사라진다. 그래서 발산을 마을사람들은 밝산이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발산리는 맥족의 근거지였다고 알려졌는데, 그 맥족이 춘천지방으로 옮겨왔을 때 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태백산과 비슷하게 닮은 산을 정하여 밝산으로 했고, 그 밝산에 제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수리는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수리봉과 이어진 용화산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제를 드렸다는 뜻에서 그 이름의 유래되지 않았나한다.



수리봉과 이어진 용화산


▲ 구봉산에서 바리본 배후령. 가운데로 난 길에서 배후령으로 오른다. 오봄리와 앙구기는 길이다. 길 오른편으로 마적산(612m), 경운산(794m), 오봉산(779m), 부용산(882m)이 차례로 보인다. 왼편으로 보이는 산이 수리봉(656m)이고 그 뒤에 위치한 산이 용화산(878m)이다. 큰 사진을 통해서 수리봉을 확인하실 수 있다.

## 등산로

수리봉은 잘 알려진 곳도 아니고 이용객이 많은 곳도 아니다. 샘밭 쪽에서 오르는 길은 알려진 곳이 없고 면허시험장에서 고탄으로 넘어가는 새미고개나 용화산 입구의 양동(유진산업-채석장)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그런데 주로 능선타고 갈 수 있는 세미고개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무난하다. 단지 아쉬운 것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과 아직 안내판이나 이정표가 없다는 것이다. 부득불 세미고개 아래에 주차하고 도로를 따라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서 들머리에 들어서면 수리봉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능선 길은 계속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나 정상은 표지석도 안내판도 없다. 주변의 위치와 시간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코스 1]

세미고개 → 0.6 km 20분 → 헬기장 → 1.7km 40분 → 양통고개 → 0.7km 25분 → 수리봉

## 수리봉의 매력

1. 이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만 춘천에 살면서 자주 바라보는 북쪽 능선을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이 있었다. 이번 산행을 통해서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그런 숙제를 했다는 것에서 마음이 참 홈가분해졌다. 이번에는 제외되었지만 세미고개에서 춘천댐으로 이어지는 능선도 한 번 밟아야 하지 않을까?


▲ 남은 숙제

2. 능선으로 된 코스자체도 아주 순하고 능선을 타고 걸으면서 샘밭 평야와 소양강과 북한강의 흐름이 합수되는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가을날 벼가 익을 때의 샘밭 들녘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겨울에 산행을 해도 좋으리라 보인다. 또한 용화산이나 배후령을 연계해서 산행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사진이 선명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으리라.


▲ 능선에서 바리본 샘밭


▲ 소양강과 북한강의 합수되는 경관그 옆에 봉의산이 보인다.

3. 세미고개는 포장되었지만 등산로 중에 만나는 양봉고개는 큰 나무와 잡풀들로 덮어있어 길의 흔적이 온전치 않다. 그러나 양 옆에 서있는 큰 봉우리 사이에 난 길은 그 옛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고개 너머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고개의 옛 정취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 양통고개

[편집위원 고 재 만]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 직원구함(경력자우대)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예수 안에서 본 예술

# 한 송이 꽃보다 못하였네



박혜경作 스올의 뱃속에서(욘 2:2) / Acrylic on Canvas / 117 X 91cm / 1999년

작품 <스올의 뱃속에서>는 요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요나처럼 스올의 뱃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버린 공간의 한구석에 내던져진 그림속의 인물처럼 작가에게는 극심한 혼란과 침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언저리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작가가 경험한 스올의 어둠속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는 깨닫지 못하며, 완전한 절망에 이르러서야 삶을 돌이키는 요나와 자신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지나간 일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도다

지나간 길에
음행과 모략과 술수와 배신들

육체의 소욕은
길가에 흔하게 핀
한송이 꽃보다 못 하였네

오늘은
오늘만을 생각하자
내일의 일도
내일에 염려하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리라

-시인. 박 유 석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8

# 복음을 위한 여름철 다이어트



고 석 연 (가정의학과)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다. 만나는 사람마다 휴가 이야기로 안부를 묻는다. 날씨는 덥고 후덥지근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고 온 몸에서는 땀이 난다. 어느덧 여름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녀석은 어느새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덥긴 더운가 보다. 요즘 들어 병원에 오는 환자 분포가 많이 달라졌다. 감기 환자는 거의 없어졌고, 피부염과 체중 감량을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늘었다. 바캉스와 물놀이를 앞두고 짧은 옷을 멥시 나게 입기 위해서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 물론 우리교회 청년들의 주된 화제도 다이어트다.

여름이면 다이어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다. 바로 수련회다. 개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수련회 준비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서 준비하며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에게 여름은 가장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때이다. 이럴 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조금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대개 일중변동을 보인다. 그런데 수면이 불규칙 하거나 부족하면 호르몬의 일중변동에 이상이 생긴다. 물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마찬가지이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수면은 필요이상으로 식욕을 항진시켜 과식을 하게 한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관리이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 보면 식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과식을 하지 않게 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규칙적이더라도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좋지 않다.

대개의 경우 저녁식사부터 다음 날 아침식사까지 12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 말이 12시간이지 하루의 반절에 해당하는 시간이므로 이 긴 시간 동안 칼로리 조절에 성공한다면 대부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단하다. 저녁을 일찍 먹고 조금 먹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저녁 식사 후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소비해야 한다. 물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식은 먹지 않아야 하겠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실행하기는 힘든 일이다.

취침 시간을 지키고 저녁식사를 조절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필요 이상으로 찐 살을 빼는 법이다. 나쁜 습관을 교정하면 살을 뺄 수 있을뿐 더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물론 건강한 육체를 지나치게 날씬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러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들을 배우고 익힌다. 그렇지만 실천은 쉽지가 않다.

여름이다. 건강하고 날씬한 육체와 나쁜 습관의 교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서 수련회의 봉사와 신앙 훈련을 위해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을 때이다.

# 제8기 쉐마목회자클리닉을 다녀와서

IQ, EQ박사 현용수의 쉐마교육을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책자를 보게 되었다. 그 중에 '한국교회의 2세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역자에게 드리는 희소식'이라는 글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인 집사부부와 한국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답답해하고만 있던 차였기 때문이다. 현대교육이나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 대안으로 쉐마교육을 주장하고 있었다. 내 마음에 굉장한 기대와 도전을 부추기고 있었다.

### 쉐마교육 - 자녀교육과 교회성장, 그리고 세계선교

춘천교역자연합회에서 현용수 교수를 모시고 가진 일일세미나는 여러모로 나에게는 많은 도전을 주었는데 지금도 끓고 있는 이 열정에 불을 붙여준 것이다. 이 일일세미나에서 인성교육과 쉐마교육 두 파트로 나누어 열강을 하는 현 교수를 통해 두 가지 지상명령이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특히 구약의 지상명령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다.(창18:19)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계획에 두 가지 지상명령이 필요한지를 말하면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라는 '쉐마'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라는 선교라는 것이다. 전자는 수직적 선민교육이라면, 후자는 수평적 전도이다. 그래서 수직적 선민교육은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삼는 쉐마교육(창18:19, 신6:4-9)이고, 수평적 전도는 이웃과 만민에게 세계선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세교육과 교회성장과 세계선교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이루는 방법이 바로 쉐마교육 선교전략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세미나 후에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1,2권을 사들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나가면서 내 무릎을 쳤고, '바로 그 동안 답답해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이 시대 교회교육의 대안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교육의 대안

그래서 이번 제8기 1학기 쉐마교육 목회자 클리닉을 찾게 된 것이다. 총3학기로 클리닉은 진행되는데 1학기는 인성교육, 2학기는 쉐마교육, 3학기는 정통유대인들의 가정과 회당을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공부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번 1학기는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1일 8시간의 강의가 이루어졌고,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1,2,3권과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1,2,3권을 중심으로 워샵북이 제공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교회교육의 위기와 문제,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들이었다. 이 기간 중 내 마음을 더 확인케 한 시간은 현재 교회에서 이 쉐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한의 목사님(부산 은항교회)의 사례 발표시간이었다.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를 마음속으로 부르게 해서 아주 좋았다.

몇 가지 아쉬운 것도 갖고 돌아왔는데,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도전을 받고 깊이 있는 또 세밀하게 정밀 분석하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해서 참석하였는데 계속적인 도전만을 강조한 클리닉으로 끝났다고 하는 점이다. 현 교수님이 너무 열정이 넘쳤는지, 물론 어떤 분은 잊을 수 없는 교육이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춘천에서의 일일 세미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좋은 컨텐츠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좋은 그릇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하는 바램이었는데 담고 있는 보자기가 뜨깁기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컨텐츠 자체는 지금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과 민감한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너무 흑백논리로 나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끓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교육의 대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너무 기대가 커서인지 실망한 점을 몇 가지 나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 무엇을 갖고 돌아왔다. 바로 그 교회교육의 대안 "쉐마교육"이다.

조국 교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아주었고, 그 다음 각 교회에 돌아가서 복음적 토양을 건실히 쌓고 쉐마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몫으로 남았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적용 가능한 건실한 교회교육의 대안을 만드는 것은 함께 클리닉에 참석하고, 함께 울며 기도했던 동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2학기도 참석할 것이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3학기도 참석하고 싶다.

이 클리닉에 갔다 온 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음을 새삼 느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오신 좋은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된 것도 굉장한 기쁨이었다. 좋은 컨텐츠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사역에 쓰임을 받는 현 교수님을 위해서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노 장 식 목사(언덕위성결교회)

## 예 향

### 주일성수의 축복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오 종덕 목사는 섬기던 큼천교회에서 쫓겨나 산골에 들어가 농사꾼이 되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덮쳐 곡식들은 다 타들어갔다. 어느 주일 아침, 그렇게 고대하던 단비가 장시 내렸다. 온 동네 사람들은 다투어 나가 논에 물을 댔으나 오 목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주일성수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오 목사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마침내 오 목사는 벼를 베어버리고 메밀을 심었다. 그런데 가뭄은 계속되어 모든 벼는 다 죽었지만 가뭄에 강한 메밀만은 살아남았다. 다른 이들은 때를 놓쳐 메밀도 심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일성수를 실천한 오 목사는 풍성한 메밀 수확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이에게 내린 은혜였다. [편집위원 최상도]

##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이열치열 뜨거운 기도로 더위를 이기자!


##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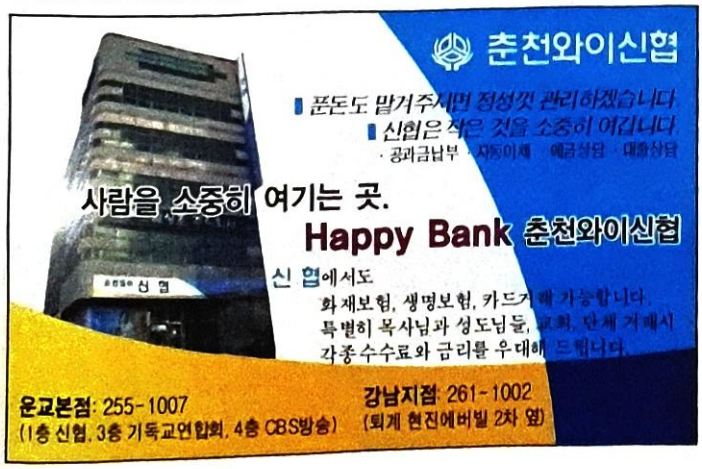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 2008년 하반기, 도약을 준비하는 춘천지역자활센터

##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나눔재가장기요양센터>는 방문목욕, 방문요양을 실시하고 있다. 2.5톤 목욕시설을 갖춘 특수차량을 활용한 방문목욕과 전문 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방문요양으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 나눔재가장기요양센터 개소

제3의 가족 - 가족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 식구들의 노력

#### 1) 장기요양대상자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말함)

####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팩스,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도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

#### 3) 장기요양 급여비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비고 |
|---|---|---|---|
| 1,097,000 | 879,000 | 760,000 | 단기보호는 한도액산정제외 |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수급자권자는 본인 부담금 없음.

[문의: 033)253-7577 담당자: 윤은자 팀장]





#### 4) 나눔재가장기요양센터의 사업내용

1. 노인돌보미사업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거동 불편자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지원, 가사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외출동행

4등급~5등급 판정 받은 분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 시간 | 구분 | 본인부담금 | 바우처지원액 |
|---|---|---|---|
| 27 | 차상위 초과 | 36,000원 | 202,500원 |
| | 차상위 이하 | 18,000원 | 220,500원 |
| 36 | 차상위 초과 | 48,000원 | 270,000원 |
| | 차상위 이하 | 24,000원 | 294,000원 |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돕는다.
   - 신청자격 : 1급 장애인으로 만 6세 ~ 만 65세 미만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 가사 ·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외출동행
   - 서비스단가 : 시간당 8,000원 [문의: 한현희 033)253-4575]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120%이내 | 최저생계비120%초과 |
|---|---|---|---|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2만원 | 월4만원 |

### ♣ 참닭갈비 사업

이윤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

참 식품사업부



1) 참닭갈비의 특징
   - 종류 : 양념닭갈비, 숯불구이양념닭갈비
   - 100% 국내산 원육 취급, 엄선된 재료와 제주산 유채꿀이 함유된 양념
   - 별도의 숙성과정을 거친 후 고객에게 배달(양념장의 24시간 1차 숙성과 원육혼합 후 24시간이상의 2차 숙성을 거침)
   - 신선하고 만족도 높은 맛(진공포장과 아이스팩을 동봉하여 최고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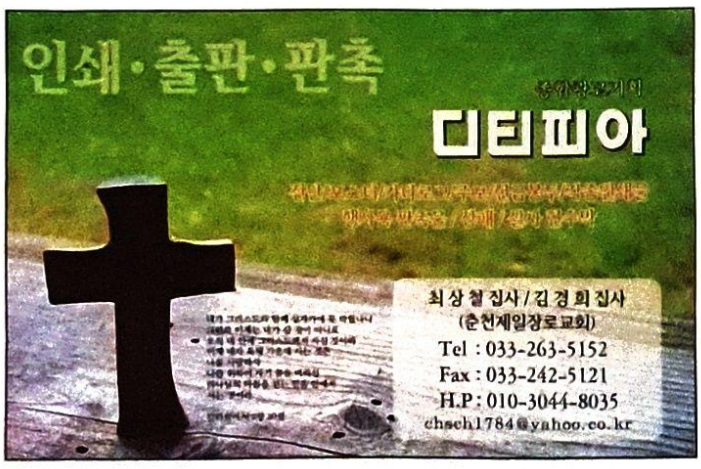
2) 문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115-3 TEL. 033)242-5263 FAX. 033)243-6523 http://www.chamdak.com 참 식품사업부

※ 최소주문단위 1kg-11,000원 / 5kg이상 주문시 택배비무료 / 국내전지역 익일배송 가능 [춘천지역자활센터 대표전화 : 033-253-4575]

### 2008 기아체험24시간 리더교육 참가자 모집 World Vision

2008년 기아체험24시간 리더교육에서는 지구촌의 기상이변과 곡물부족 등을 초래하는 "지구촌의 물"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교재와 활용자료를 심도 있게 구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월드비전의 리더교육을 이수하여 배움과, 느낌, 그리고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아체험 24시간 리더"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08년 8월 23일(토) 10시~16시
- 장 소: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 자 격: 교사, 대학생, 목회자, 교역자, 동아리리더 등
- 제공사항: 리더 인증서, 각종교재, 리더 조끼, 점심(긴급구호 식량제험)
- 신 청: 기아체험 홈페이지(www.famine24.net) · Fax(033-251-1164) 신청 (선착순 100명)
- 참가비: 10,000원(아시아라오스 식수지원사업비 후원)
- 문 의: 033)254-7244 월드비전 강원지부 이연순 간사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4>

# 밀양 (密陽)




우리나라의 기독교 영화는 비교적 인천한 편이다. 1977년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임원식 감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1981년 이문열의 문제작을 스크린으로 옮긴 유현목 감독의 <사람의 아들> 및 1982년 이장호 감독이 만든 <낮은 데로 임하소서>가 겨우 기억나는 정도이다. 그러나 대개 거장들의 손에서 만들어져 좋은 반응을 얻는 편이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온전한 기독교 영화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동시켰던 것에 비해 <사람의 아들>은 상당히 인본적인 입장으로 신앙의 개인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지금 소개하는 <밀양>과 더불어 소설가 이청준의 작품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며 맹인목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대종상 감독상을 비롯,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주연 배우 전도연에게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겨주며 대한민국 영화대상 작품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던 화제작이다.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던 주인공. 그러나 아들이 유괴 살해된 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유괴하여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그 범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며 오히려 주인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미안해할 줄 알았던 범인의 뻔뻔할 정도의 평안한 모습. 그녀를 더욱 큰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주인공의 내적 고민이 극한적으로 그려졌다. 죄와 구원, 용서의 의미를 인간의 내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 이러한 줄거리는 언뜻 신실한 기독인의 관점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아픔 없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고뇌를 겪어 본 사람이라면 올바른 분별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적이기 보다는 문학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거듭남이란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러닝타임 141분 19세 이상 관람가]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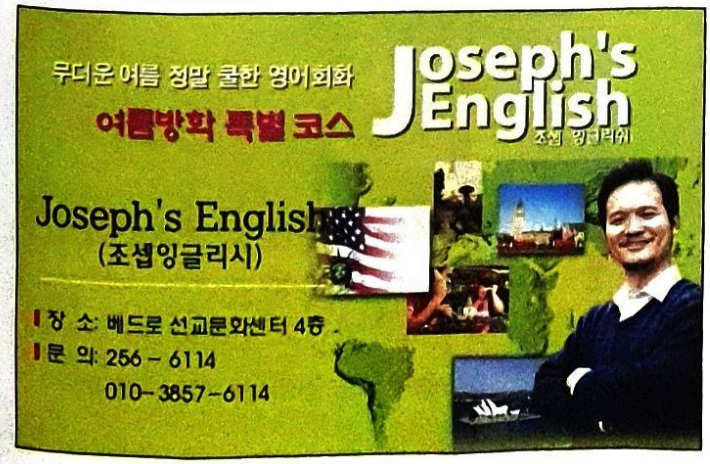

##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외환은행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 [성시화 7월 후원자 명단]

| | | |
|---|---|---|
| 갈릴리교회 | 광염감리교회 | |
| 광명장로교회 | 거성침례교회 | |
| 나눔성결교회 | 늘사랑교회 | |
| 동신장로교회 | 순복음춘천교회 | |
| 순복음하나교회 | 사암성결교회 | |
| 새순성결교회 | 새춘천교회 | |
| 소양제일성결교회 | 세인장로교회 | |
| 순복음열린교회 | 온누리장로교회 | |
| 예수촌교회 | 주영광교회 | |
| 주향교회 | 춘천기독교연합회 | |
| 춘천일신교회 | 춘천동부교회 | |
| 춘천명성감리교회 | 춘천북부교회 | |
| 춘천사랑의교회 | 춘천제일감리교회 | |
| 춘천중앙성결교회 | 한빛장로교회 | |
| 평화실로암교회 | 춘천클리클럽 | |
| 춘천외이신협 | 천일천수막 | |
| 국민일보 춘천지사 | 디티피아 | |
| 앤투어 | 제시뉴욕 | |
| 강선희 | 강옥자 | 강태량 |
| 김기태 | 김길홍 | 김라현 |
| 김미경 | 김미경2 | 김미경3 |
| 김성희 | 김영관 | 김영명 |
| 김영일 | 김영창 | 김요섭 |
| 김은선 | 김재철 | 김제홍 |
| 김진삼 | 김태숙 | 김현배 |
| 김현철 | 김희경 | 박난영 |
| 박동환 | 박래희 | 박제자 |
| 박중근 | 박형숙 | 송난의 |
| 신성균 | 심경하 | 심인섭 |
| 안미애 | 안정숙 | 안현주 |
| 양금환 | 엄필남 | 오의석 |
| 오홍수 | 원희정 | 유갑순 |
| 유근창 | 유병준 | 유영호 |
| 유인혁 | 유재형 | 윤성자 |
| 이규현 | 이내리 | 이동인 |
| 이명순 | 이무식 | 이병연 |
| 이병일 | 이상돈 | 이순자 |
| 이영진 | 이용규 | 이원균 |
| 이원기 | 이원영 | 이윤숙 |
| 이진주 | 이태경 | 이혜인 |
| 임재철 | 장기남 | 장기영 |
| 장선정 | 장소영 | 장요한 |
| 장창순 | 정규시 | 정재근 |
| 정재호 | 정주연 | 정찬복 |
| 조명호 | 조은제 | 조정일 |
| 조정자 | 주승희 | 지경화 |
| 최병숙 | 최상호 | 최을용 |
| 최치광 | 최혜영 | 한성이 |
| 한순수 | 한희현 | 함증현 |
| 허순영 | 허인영 | 홍순복 |
| 홍순신 | 황병천 | 황은주 |
| 황정섭 | 홍택기 | |








## 사랑을 나누세요!
##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운동

조 남 진 장로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운동본부장

결핵이란 결핵균의 기생에 의해서 국소에 맺히는 작은 결절상의 병을 말하는데 이 결핵균이 침범하여 폐, 신장, 장 등 내장이나 뼈관절, 늑막, 복막 등에 염증을 일으키며 폐, 신장 장결핵 등은 물론 결핵성 늑막염과 복막염 뇌막염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폐결핵은 죽음의 병이었다. 결핵은 전염병으로써 예방에 힘쓰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잘 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다른 전염병 환자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2005년 국내 신규발생 결핵환자는 3만5천명, 그 가운데 20~30대가 1만2천5백 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35.6%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젊은 층 환자수가 많은 것은 청소년들의 체력저하와 여성들의 절제 잃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2006년 신규 결핵환자수가 4만2천명, 연간 3천3백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1백50만명 정도이고 탈북자들의 결핵감염률로 추정하여 결핵감염자수를 인구의 10%내외로 본다면 15만명 내외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가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김주환 회장이 임기 중 무슨 뜻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전 적십자사 총재 이윤구 박사가 전개하고 있는 북한결핵어린이돕기사업을 강원도의 경우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모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강원일보와 공동사업협정(4월18일)을 맺고 도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장, 총무, 장로 대표를 강릉경포호텔에 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사업을 강기총의 2008년도 정책사업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의 실무집행기구로써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 본부장으로 필자(전강원일보사장)가 선출되어 모금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강원일보에 이어 춘천CBS와도 협정을 맺어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모금은 순복음춘천교회 이영숙전도사가 암수술비용으로 준비했던 9백만원을 선뜻 내놓음으로써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켰고, 김주환 목사가 1천만원, 성도들이 7월 20일 현재 1천8백여만원을 내놓아 순복음춘천교회에서만 3천 7백만원을 모금했다. 불교계에서도 호응 속초의 신흥사 조오현 스님이 5백만원을, 또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도 5백만원을, 춘천을 비롯한 양구 등 각 지방의 교회들이 모금해오고 있다. 특히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은 성금이 들어오고 있어 모금 목표인 3억원(1만명분약값)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춘천경찰서를 비롯한 각 경찰서의 호응도 대단하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런데 엄마 전 금강산 관광을 갔던 관광객 한 명이 피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돼가는 느낌이다. 이와 같을 때 북한 지원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도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동포,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 특히 같은 도인 북강원도의 결핵환자들을 위한 결핵약 보내기 운동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운동본부는 금년모금을 연말로 마감하고 모금된 액수의 결핵약을 사서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원산을 방문,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목표인 3억원의 3분의 1인 1억원을 조금 넘긴 성금이 들어왔을 뿐이다.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붓을 놓는다.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 어린이재도회
**1) TCE 1단계 교사대학 모집**
일시: 8월 18일 ~ 29일 월·화·목·금 2주간
오전반 9:20~1:00 / 저녁반 6:30~10:00
등록금: 100,000원(핸드북, 시범용 교재, 간식 포함)
모집인원: 오전반·저녁반 각 12명씩 / 선착순 마감
모집마감: 8월 11일(월) 정오 / 마감이후 등록금 120,000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2008 YES COME SUMMER CAMP**
"군계일학(평범한 무리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
일시: 8월 4일(월) ~ 6일(수) 장소: 충신수양관(경기도마석)
강사: 박상철 목사(미국라스베가스성시화 사무총장)
**2) 북한 선교 포럼**
일시: 8월 4일(월) ~ 6일(수) 장소: 서울 CCC본부
문의: 010-7441-0311(백민정간사)
**3) 광야 훈련 (춘천CCC)**
일시: 8월 19일(화) ~ 22일(금)
**4) 전국 간사가족 수련회**
일시: 8월 25일(월) ~ 28일(목) 장소: 속초 한화콘도
문의: 252-0542, 254-5776

###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지역을 바꾸는 중보기도 세미나
일시: 7월 1일 ~ 8월 19일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주제: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중보기도와 성령, 전략적인 기도, 춘천을 위한 기도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 IVF
**1) 간사 사역협의회**
일시: 8월 4일(월) ~ 5일(화) 장소: IVF회관
**2) 간사 가족수련회**
일시: 8월 6일(수) ~ 9일(토) 장소: IVF회관
**3) 1학년 기초신앙훈련/ 연합리더캠프**
일시: 8월 18일(월) ~ 23일(토) 문의: 252-5200

### ◆ JDM
**1) IMT1 훈련**
일시: 8월 4일(월) ~ 22일(금) 장소: JDM훈련센터
**2) 개강LTC**
일시: 8월 18일(월) ~ 21일(목) 장소: JDM훈련센터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 GBT성결변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8월 4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강사: 박민하 선교사(GBT대표)
**2) 워클리프스쿨 리더수련회**
일시: 8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대전제일교회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oon@v2025.or.kr]

###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모임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5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5시 문의: 017-374-2440

###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일시: 8월 4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효자감리교회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 ◆ 예수님교회
**1) 제1차 평신도성경학교개설기념 강좌**
일시: 8월 25일 ~ 26일(월, 화) 오전11:00~오후1:00
장소: Jesusway church(예수님길교회)
내용: 유사기독교(천주교 등 이단에 대하여)
강사: 황관중 목사(예수님길교회) 문의: 010-2245-6091
**2) 창조과학을 교과서에 담자! 창조과학 교과서 싣기 운동**
기간: 2008. 7. 15 ~ 12. 31일까지
장소: 거리서명 - 명동에서 하루2시간씩(오후2:00~4:00)
문의: 창조과학 교과서 싣기 운동본부(가칭) 010-2245-6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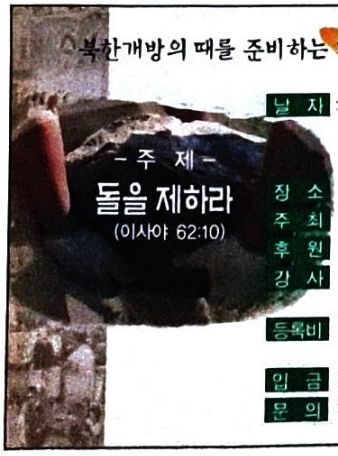
###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1) 춘천 대안교육 학생모집**
대상: 중고교생(소개: 학생들에게 적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메트스쿨 같은 대안학교를 지향)
**2)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청년봉사자: 스포츠, 동아리, 음악, 영어, 상담 등 청소년을 위해 함께 활동해주실 기독 청년.
전문봉사자: 각 분야의 교수, 사업가, 연구자, 국제활동가 등 청소년을 위한 멘토로봉사하실 분.
문의: 254-3205 / H.P. 011-9737-1919

### ◆ 춘천기독국악무용선교단 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앞 1.5닭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국악무용선교단 010-3180-5330

### ◆ 2008년 8.15광복절 연합예배
일시: 8월 17일(주일) 오후7시 장소: 춘천중앙감리교회
문의: 춘천교역자연합회 011-399-2939

### ◆ 강원도총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
일시: 2008년 9월 2일(화) 장소: 횡성 종합운동장
문의: 강원도총기독교연합회 011-371-5119

###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청소년 비전캠프"
일시: 2008년 8월 4일(월) ~ 12일(화)
장소: 중국 단동가나안농군학교 및 집경지역, 고구려 유적지, 심양, 백두산 등반




날 자 : 1차 - 7월28일(월)~8월 1일(금) - 일반인1
2차 - 8월 4일(월)~8월 8일(금) - 청소년
3차 - 8월11일(월)~8월 15일(금) - 일반인2
장 소 : 삼수령목장(강원도 태백시)
주 최 : 삼수령 네번째강계획 & 예수원
후 원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 사 : 고무송목사, 성토모, 예수원, 벤토레이신부, 최요한형제
등록비 : 1차 - 15만원(각 기간 3주전 금요일 마감)
2차 - 17만원(각 기간 전주 금요일 마감)
입 금 : 국민은행 308301-04-163293 최요한
문 의 : 033)553-3395 / jasamsu@hanmail.net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총기독교연합회

# 2008친선체육대회

▶일 시 : 9월 2일(화)
▶장 소 : 횡성종합운동장
▶문 의 : 강원도총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오승룡(011-371-5119)

##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 월례예배가 7월 2일(수)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열렸다. 예강교회 정명훈 목사는 딤후1:16~18절 말씀을 통하여 "성시본부가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던 오네시보로와 같이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에도 유익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 기하성 강원지방회 하나로 화합 이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조용목 목사) 강원지방회는 7월 7일(월) 오전11시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통합선언 및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춘천 원주 화천 홍천 등 강원영서 지역 67개 교회 12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교단 발전, 지방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과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가 지난 5월 하나님의성회 총회를 치른 뒤 처음 개최한 통합선언 대회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 기독영화 상영



춘천성시신문편집위원회는 7월 10일(목) 저녁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기독영화 "왕과 함께한 하룻밤"을 상영하였다. 이 영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신앙고백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게 된 왕비 에스더의 신앙이야기로, 무척 감동적이었다.

## ■ 북한 결핵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심인섭 이사장과 임직원은 7월 22일(화)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본부를 방문, 임원과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189만원을 조남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심인섭 이사장은 "직원들의 사랑의 마음이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2기 성시아카데미 수료식



2기 성시아카데미(원장:피종호) 수강생들은 성시지도자와 통일선교사를 양성하는 11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7일(월) 오후7시 성시본부 세미나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피종호 원장은 "성시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한 수료생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성시본부, 북강원 결핵어린이돕기 나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한균)는 춘천CBS방송(본부장:김세환)과 함께 7월 2일 춘천지하상가에서 북강원 결핵 어린이돕기운동을 춘천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성시본부는 지속적으로 강원도 총기독교연합회가 전개하는 결핵어린이돕기운동을 적극 홍보 및 협력할 계획이다.

## 성시본부와 홀리클럽, 사랑의집짓기 봉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홀리클럽 임원단 12명은 7월 28일(월) 신북읍 천전4리 건축현장에서 열린 2008 한국번개건축 개회식에 참여하였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김승구 사무국장과 성석중 건설팀장을 격려하고 일일봉사로 섬겼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성호 이사의 사회, 마철규 장로연합회장의 기도, 곽영준 목사의 설교, 김창수 이사장의 인사, K-Water 유영수 단장의 격려사, 이학규 실행위원장의 지회소개로 진행됐다. 8월 1일까지 경희대, 명지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일반참가자 총 130여명이 사랑의집 2개동 8세대 주택을 건축에 참여하게 된다.

## ■ 나라사랑 범 도민 특별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회장:허천)는 7월 20일(주일)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제8회 나라사랑 범도민 특별기도 대성회를 열었다. 이날 김선도 감독은 "상처를 영광이 되게 하라(신명기 32:7~12)"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안정, 국가정체성 회복과 공권력 확보, 대통령과 국가·사회 지도자, 국법수호와 치안질서 유지, 나라사랑-바른역사교육 강화, 국방·외교와 남북대화 재개"란 기도제목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 ■ 아웃백, 연합회에 따뜻한 격려를



아웃백 춘천점(대표:문형진)은 1주년을 기념하여 7월 23일(수)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를 초청, 맛있는 식사로 연합회 임원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한균 목사는 아웃백이 춘천시민과 지역경제에 큰 유익을 주는 사업장이 될 것과 아울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건강한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였다.

## ■ 춘천기독교 기관장 기도모임



춘천기독교 기관장 기도모임이 7월 24일(목) 오후6시30분 장미공원에서 김주환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조남진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운동본부장, 허천 국회의원, 이학규 춘천홀리클럽회장, 정재호 춘천성시사무총장을 비롯한 교계 기관장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김주환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기독기관장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였고, 격려차 방문한 전용태 전춘천지검장은 기독교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성시화운동에 앞장 설 것을 역설하였다.

##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7월 1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강원여성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삼아 80만 강원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그리고 7월 24일(목) 오후2시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드림키즈 페스티발에 참가한 부모님과 아동들에게도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취재 · 김 미 경

# 광복63주년 기념 광복절연합예배

- 일 시 : 2008년 8월 17일(주일) 저녁7:30
- 장 소 : 춘천중앙감리교회
- 강 사 : 소 화 춘 감독(충주제일감리교회)
- 주 관 :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



강사 소 화 춘 감독
(충주제일감리교회 담임)

소화춘감독 약력
- 충북연회 감독(역임)
- 충북연회 충주신학원 원장
-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 이사장
- 세계오메가 선교회 이사
- 연세대학교 법인이사(역임)
-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2회역임)
- 충주 호스피스 이사장
- 감리교 노인대학 협의회 회장
- 뉴라이트 충주연합 상임 회장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를 섬기는 분들

| | | | |
|---|---|---|---|
| 회 장 | 피 종 호 목사(나눔성결교회) | 회 계 | 송 재 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 |
| 부 회 장 | 지 용 찬 목사(은혜장로교회) | 부 회 계 | 김 기 만 목사(옥산포침례교회) |
| | 조 영 호 목사(그리스도교회) | 협동총무 | 조 영 춘 목사(예광침례교회) |
| 총 무 | 김 종 익 목사(광명장로교회) | | 박 재 영 목사(소망성결교회) |
| 부 총 무 | 김 병 천 목사(남산감리교회) | | 이 영 규 목사(안디옥성결교회) |
| 서 기 | 장 춘 근 목사(지내리감리교회) | | 윤 병 식 목사(강남감리교회) |
| 부 서 기 | 이 진 석 목사(신북성결교회) | | |

※춘천이 성시화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광고로 포스터를 대신합니다. · 문 의: 총무 김종익 목사(010-2261-5572)


# 삼원가든

▮ 대 표 임 영 빈, 신 인 순 집사

▮ 연락처 243-4017, 010-5072-7649

점심 특선합니다!

퇴계동 삼원가든(중앙장로교회 옆)




신나는 놀이여행~

드림키즈페스티발

Dream Kid's Festival



08.7.21~8.20

호/반/체/육/관

개장시간 : 오전10:00~오후7:00

평일선착순 100명에게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 여름 성경학교 및 주일학교 행사에 <드림키즈페스티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면 보다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문의부탁드립니다

주 최 | 에어바운스매니아 www.ccdream.co.kr 문의전화 033)251-5550

후 원 | 강원방송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JEI 재능교육 / 삼성퇴계프리자 / 청소년연맹 / 마루PC방


춘천성시화운동본부